

성스러운 투쟁, 보람찬 투쟁

2018년 1월 어느날이었다.

평양제약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현대적인 제약공장으로 전변시킬 구상을 천명하시였다.

이윽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평양제약공장의 현대화는 단순히 의약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고 인민들이 사회주의보건제도, 조선로동당의 보건정책이 좋다는것을 말이나 글로써가 아니라 실지 생활로 느끼도록 하게 하는 중요하고도 성스러운 투쟁, 보람찬 투쟁이라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